

## 일반논문

## 식량난이 북한여성에게 미친 영향

임 순 희\*

I. 머리말

II. 식량난 실태

III. 식량난이 북한여성에게 미친 영향

IV. 맺음말

## ABSTRACT

## The Impact of the Food Crisis on North Korean Women

The primary victims of many years of famine in North Korea were women. The food crisis imposed the burdens of family-support on them, inflicting unspeakable ordeals such as worsening health, overwork and sexual violence. The situation even drove them to use their body as a means of maintaining their livelihood. In addition to their increased economic activities to obtain food and earn money for the family and the male-dominant, patriarchal social consciousness, most North Korean women had to take care of family chores as they had done before the crisis, a dual burden on them. Under the weight of the food crisis, economic hardship and desperate living conditions, they had to bear the burdens of being a breadwinner and a housewife amid a deteriorating quality of life. The other side of the coin, however, was that the food crisis had served to stimulate North Korean women to become conscious of the value of their self and their own life. Their economic activities in support of the family livelihood also served to improve their economic independence.

**Key words:** food crisis, workload, sexual violence, trafficking, prostitution, role, attitude

---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 머리말

남북한 사회통합의 주요 전제는 남북한간 이질성 극복 및 동질화이며 이를 위한 필수 선행과제는 북한주민의 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또한 북한주민의 생활에 대한 이해는 집단별·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심층이해를 도모해야 하며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 추세는 이와 같은 심층이해의 의의와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생활에 대한 집단별·계층별 이해에 있어 특히 북한여성에 대한 심층이해는 다른 무엇보다도 북한인구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 여성들이 가정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여성에 대한 연구는 북한연구의 타 분야에 비해 부진한 편이며 기초자료 축적도 미흡한 실태이다. 또한 특히 1990년대를 통해 북한여성은 식량난으로 인해 다른 집단 및 계층에 비해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역할 및 의식에 있어 크고 작은 변화가 초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도 연구성과물이 부족한 편이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식량난이 북한여성들에게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초래된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를 밝혀 논하며 이를 통해 북한여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주로 관련문헌을 자료로 한 내용분석이며 문헌의 대부분은 중국, 또는 국내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내지 수기를 모아놓은 책자들이다. 또한 주요 분석자료인 관련 책자들의 내용을 검토, 보완하기 위해 국내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여성 10여 명과의 심층면담결과와 관련 선행연구결과물들을 활용하기로 한다.

## II. 식량난 실태

1980년대부터 이미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북한의 식량난은 1990년대 들어 종래 북한에 대해 식량 및 연료·비료의 최대 공급국이었던 구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대 북한정책 변화로 인해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악화되었으며, 잇따라 발생한 냉해(1993/1998), 대홍수(1995/1996), 고온 및 해일과 가

물(1997), 강우부족(1999) 등 자연재해로 인해 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북한의 식량난은 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 실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1996년 평양을 방문하여 식량배급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자에 의하면 당시 평양 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량은 하루에 300g(피부양자는 100g)이었으나, 함경북도 청진, 무산 등의 지방에서는 1995년 이후 3개월분 공급을 초과하지 못하였으며 1998년도에는 김일성·김정일 생일을 포함해 연 4회, 그것도 이틀 분씩만 공급했다고 한다.<sup>1)</sup>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듯 중국 거주 탈북난민들의 증언을 모은 책들에서는 “식구들 모두가 3~4일씩 밥을 못 먹을 때가 보통”이었다는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식량난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풀뿌리, 벼뿌리, 드릅나무, 뽕나무, 소나무껍질, 산나물, 들풀 등을 대체식품으로 하여 하루 한 끼 정도로 연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거주 탈북난민들과 국내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식량사정이 아주 어려웠던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은 풀뿌리를 캐어다가 죽을 쑀어 먹든가, 또는 송기(소나무 어린 가지의 속껍질)를 갈아 만든 떡 등을 먹었으며, 추수 후에는 벼 뿌리를 캐어다가 옥수수과 섞어 갈아서 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소화장애로 인해 크게 고생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식량난으로 인한 타격은 거주지역별·직업별로 차이를 나타냈으며 단위가족의 수 및 건강상태,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 내지 경제력, 친족의 지원여부 등에 따라서도 정도를 달리하였다. 지역적으로 기근의 피해는 함경남도를 위시한 동북지역과 평안남도 등 서북지역에서 심각했던 반면 황해남도를 포함한 서남지역과 평양 등 특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적었다.<sup>2)</sup> 대부분 국제사회의 지원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간 수송체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 산간지역과 동부지역의 식량난이 더욱 심각했다.<sup>3)</sup> 그러나 북한 동북지역의 기근피해가 심각했던 것과 관련해 나초

1) 최명숙, “90년대 이후 조선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한국여성연구원,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연변대학 여성문제연구중심, 1999), pp. 2~3.

2) 이석, “1994~2000년 북한 기근: 초과 사망자 규모와 지역별 인구변화,” 『국가전략』, 제10권 1호 참조.

스(Andrew S. Natsios)는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로 이 지역에 대한 북한당국의 차별적 분배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나초스는 중국 거주 탈북난민의 80% 이상이 동북지역 출신이라는 점은 이 지역 주민들이 중국 조선족에의 접근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북한당국의 차별적 분배정책의 희생자들로서 가장 많이 궁핍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당국은 1990년 초 동북지역에 대한 식량배급을 감소시키고 1994년에는 완전히 식량배급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바, 동북지역의 기아로 인한 사망률은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고 가장 일찍 나타났다는 것이다.<sup>4)</sup> 또한 북한의 기아는 농촌보다 텃밭이 없는 도시지역에서 더 심각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물품 입수가 어려운 동해쪽 공업도시의 노동자에게 타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지역적 차이는 중국 거주 탈북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북한 전체 인구의 25%를 농민이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 거주 탈북난민들 가운데 농민은 4%에 불과하며, 조사에 응한 탈북난민들은 농촌(1.9%)보다 도시지역(70.4%)이 기아가 심각하다고 답하였다.<sup>5)</sup> 그러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농민들의 형편도 크게 악화되었는바,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식량난으로 인한 직업별 사망률은 전문직노동자(7.0%), 사무직노동자(11.8%), 생산직노동자(18.4%), 농민(24.0%), 무직업(45.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sup>6)</sup> 직업별로는 특히 학생교육, 환자진료 등을 담당하는 교사, 의사 등의 전문직은 생활이 어려워도 일상적인 교육이나 진료 등의 직무를 중단하고 부업을 할 수 없었으며 당의 통제도 보다 엄격했으므로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량난에 따른 생활고가 심하였다고 한다.

북한에는 장사 자체가 자본주의의 온상이라고 해서 반대했어요. 그러나 식량사

3) 이금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 98~99.

4) 동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방당한 적대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할 때, 차별적 식량분배정책은 정치사상적 계층분류에 기초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나초스 지음, 황재욱 옮김, 『북한의 기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서울: 다함미디어, 2003), pp. 155~158 참조.

5) 위의 책, p. 140.

6) 강정구·법륜 엮음, 『1999 민족의 희망찾기』 (서울: 정토출판, 1999), p. 188.

정이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풀어냈어요. 풀어냈는데도 교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 이미지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내용하고 본인들 생활하고 틀리니까 당에서 교원들 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더 힘들지요.<sup>7)</sup>

또한 식량난을 겪는 과정에서 중국, 일본, 미국 등지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북한주민들은 식량난으로 인한 타격이 보다 덜했으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아로 인한 사망자 수와 관련해 북한당국은 22만 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국내외 관련 단체 및 연구자들에 의한 아사자 추정치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른다.<sup>8)</sup> 이와 같은 다양한 수치는 사망자 추정방법과 이용자료, 추정대상과 기간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북한의 기근 사망자 규모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을 평가한 후 보다 신뢰성 있는 방법을 통해 기근 사망자 수를 추정한 한 연구자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위기는 1994~2000년 간 유의미한 인구변화를 수반하는 기근으로 발전했으며, 이러한 기근으로 인해 좁게는 25~69만 명, 넓게는 25~117만 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sup>9)</sup>

이와 같이 100만 명을 웃도는 북한주민의 사망 원인은 근본적으로 기아, 곧 굶주림에 있다. 그러나 사망률이 점차 급증추세를 나타내게 된 데에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함께 비위생적 식수, 물 부족, 비누 부족 등 불결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폐결핵, 파라티푸스, 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등 각종 전염성 질병의 확산이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질병들은 현대의학으로 완치 가능한 것들이나 북한주민들은 영양부족, 기초 의약품 부족, 의료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7)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 116에서 재인용.

8) 한 예로 대북인도적 지원단체인 ‘(사)좋은벗들’은 식량난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인 1995년 8월부터 1998년 7월 말까지 약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였고 수십만 명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좋은벗들, 『북한 식량난과 북한인권』 (서울: (사)좋은벗들, 2004), p. 29.

9) 이석, 앞의 글, pp. 118~144 참조.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고 만 것이다.

### Ⅲ. 식량난이 북한여성에게 미친 영향

#### 1. 노동부담 증대와 건강악화

##### 1) 노동부담 증대

북한은 정권 창립 이전부터 여성들로 하여금 가사전담이라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못 박고 동시에 건국사업에의 적극 참여를 통한 남녀평등 구현을 내세워 여성 노력동원을 합리화시키었다. 이와 같이 북한이 여성들에게 요구하는바, 전통적 주부로서의 역할과 혁명가로서의 역할을 병행해 나가는 데 따른 북한여성의 이중 노동부담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보다 더 가중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난이 악화되어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조치들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함에 따라 북한 여성들이 과도한 노동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식량문제 해결과 관련한 가사노동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가족부양을 떠맡은 여성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또는 장사를 하기 위해 장거리를 오랜 시간 걸으며, 대체식품 마련을 위해 산과 들에 나가 산나물, 풀뿌리, 나무껍질 등을 채취하고, 산비탈을 개간하여 패기밭을 만들어 농작물을 경작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사회에서도 가족내의 노인이나 병약자를 돌보는 일, 그리고 가족내의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과 같은 복지기능은 사회에서 해결되기보다는 가족 내에서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할 때,<sup>10)</sup> 식량난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역할은 여성들의 가사노동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경제난과 함께 실직하여 가정으로 돌아온 기혼여성들은 가사노동 외에도 인민반에서 조직하는 각종 무보수노동(위생청결, 협동농장 지원 등)에 무조건 동원되었으며, 이로써 여성들의 이중 노동부담을 더해 주었다.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62조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

10) 김경희, “통일한국의 양성평등한 복지구현을 위하여: 남북한 여성복지 비교,” 미래인력연구센터 편, 『여성이 만드는 통일한국의 미래』 (서울: 생각의 나무, 2001), p. 168, 김영란, “북한여성의 사회복지정책연구,” 『지역학논집』, 제5집, p. 59에서 재인용.

와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의 개정헌법 제77조에서는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라고 명시하여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이로써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악화로 인해 가사노동의 사회화, 자녀양육의 사회화 시책이 축소 내지 약화되었음을 시사하였다. 요컨대 이와 같이 경제난의 과정에서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시책이 축소되고 가정에서 가사 및 양육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북한여성들은 과도한 노동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 2) 건강 악화

1990년대 중반 이래 수년간에 걸친 북한의 기근은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1백만 이상의 북한주민들을 영양실조와 이로 인한 질병, 또는 비위생적 식수와 물 부족 등의 불결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전염병 등으로 희생시켰으며 그 대상은 주로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여성들이었다. 다른 북한주민 모두에게 일반적이듯 기근으로 인한 북한여성들의 희생 역시 영양실조에서 비롯되었다.<sup>11)</sup> 그러나 굳이 차별화한다면 북한여성, 특히 어머니들은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먹지 않거나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영양실조로 인한 건강악화가 보다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여성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먼저 먹이고 음식이 남으면 겨우 한 끼니를 때우는 정도였으며 4~5일씩 굶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영양실조로 인해 발병하는 펠라그라, 결핵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할머니들의 사망률이 높았다고 한다.<sup>12)</sup>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은 어머니들이 “한 공기의 죽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양보”<sup>13)</sup>하는 이와 같은 실태가 근본적으로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가정문화에

11) 북한당국이 유엔아동기금(UNICEF)·세계식량계획(WFP)의 협조 하에 발표한 2004년 영양실태조사 내용(DPRK 2004 Nutrition Assessment Report of Survey Results)에 따르면,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약32%가 영양실조상태이며 34.7%가 빈혈증을 나타내고 있다.

12) 정00·노00, 2004년 4월 14일 면담; 김00, 2004년 4월 29일 면담.

13) “당의 참된 딸로 사는 행복,” 『로동신문』, 2000년 3월 8일.

서 비롯된 것임을 한결같이 전하고 있다. 이를 태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들은 세대주,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먼저 챙겼으며, 또한 응당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어머니 자신은 소량의 옥수수가루, 또는 밀가루를 물에 풀어 들푼을 넣고 끓인 풀죽으로 하루 한 끼를 때우거나 아예 굶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기근으로 인한 북한여성들의 영양실조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결과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건강악화이다. 여성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해 출산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sup>14)</sup> 영양부족 상태에서 수태함으로써 유산 내지 사산, 또는 미숙아 내지 저 체중아 출산 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치게 된 것이다. 영양결핍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불임으로 출생률이 크게 낮아졌음은 한 조사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기아가 발생하기 전, 1990년 초에는 1,000명당 21.8명의 출생률을 보였는데 1997년에는 1,000명당 11명으로 감소함으로써 출생률이 50%나 낮아졌다.<sup>15)</sup> 기아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 여성의 신생아 출생률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이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의료보급체계도 붕괴됨으로써 안전한 피임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임신한 여성들이 잘못된 낙태를 시도하여 아이와 산모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북한에서 혼전·혼외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래 외국 문화의 유입에 따른 성의식의 변화와 함께 생계유지를 위한 매춘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혼전·혼외 성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혼전·혼외 성행위에 의한 임신부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법 낙태수술을 감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식량난 이후 영·유아 및 어린이 사망률이 급증하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함에 따라 1998년 제2차 ‘어머니대회’를 통해 다산이 장려되고 특히 김정일의 ‘아이를 낳을 데 대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낙태나 피임 수술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역시 불법 낙태수술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뇌물을 주고 의사를 집으로 불러 비밀리에 중절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마취도 거의

14) 북한이탈여성들에 따르면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 사이에 생리불순이거나 아예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15) 나초스 지음, 황재옥 옮김, 앞의 책, p. 101.

하지 않는 시술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심하여 여성건강을 크게 해치며 이로 인해 불임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한 예로 집에서 불에 달군 쇠 젓가락만을 사용하여 중절수술을 했던 한 북한여성은 수술 후 심한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결국은 불임여성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sup>16)</sup>

수년간 지속된 기근에 따른 북한여성의 건강문제는 위에서와 같은 영양실조와 이로 인한 임신·출산·육아의 어려움에서만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의 대부분이 장사를 수단으로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나 열악한 장사 환경 내지는 조건(소매치기, 강도, 인신매매, 성폭행, 열차·장마당 안전원 및 군인의 횡포 등 타인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에 대한 불안감과 장거리 도보, 배고픔 등)으로 인해 심신의 건강이 심각한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노동부담 및 가족부양의 책임 증대에 따른 육체적·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고통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식량난 이후 여성들 사이에 결핵을 비롯해 자궁암, 유방암, 당뇨병 등을 앓는 환자가 많아졌으며, 특히 매춘으로 인해 성병을 앓는 여성들이 적지 않으나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마당에서 구입한 중국약으로 집에서 치료하는 형편이라고 한다.<sup>17)</sup>

식량난이 초래한 북한여성의 건강악화는 북한여성들의 건강 의식 내지 인식에서도 근원을 찾을 수 있다. 한 마디로 북한여성들은 자신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 내지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자의 북한이탈여성 면담결과와 중국 거주 탈북난민 여성들의 관련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여성들은 부인과 질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며 부인과 질환에 대한 인식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여성 면담결과를 통해 보면 이들은 부인과 질환의 병명이나 발병원인 및 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자궁암이나 유방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은 북한여성들이 부인과 질병에 대한 조기·정기진단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사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인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16) 허00, 2004년 4월 16일 면담.

17) 허00·최00, 2004년 4월 16일 면담.

## 2. 성폭력의 심화와 성의 도구화

### 1) 성폭력의 심화

일반적으로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성폭력은 그 사회의 성문화 안에서 사회화된 결과로 나타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sup>18)</sup> 이에 대해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상 남존여비의 관념과 가부장적 의식이 팽배해 있는 북한사회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아내 구타 등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일상화된 현상이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실태는 북한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남성위주의 성에 대한 그릇된 통념과 여성에 대한 경직된 순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으며, 학교 및 사회에서의 성교육 부재에도 근원이 있다고 하겠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1990년대 이래 식량난을 겪는 과정에서 보다 심화되었으며, 특히 여성 인신매매와 성폭행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여성의 인신매매 실태는 중국 거주 탈북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에 거주하는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지역의 유민 중 여성 비율이 75.5%를 차지하며, 탈북유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불법결혼을 하거나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 결혼형태로 살아가고 있다.<sup>19)</sup> 또 다른 조사에서도 중국 거주 탈북난민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인신매매 조직이 여성들의 탈북과정에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탈북난민 여성 응답자들은 현재의 남편과 함께 살게 된 이유를 ‘북에서 넘어온 후 불잡혀 팔려온 경우’(33.2%), ‘갈 곳이 없을 때 중국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소개’(26.7%), ‘중국으로 넘어온 후 스스로 현재의 남편을 알게 되어서’(8.4%) 등의 순으로 답하고 있다.<sup>20)</sup>

18) 김원홍 외, 『개정 오늘의 여성학』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p. 293.

19) 여기에서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관계가 아니라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 또는 소개에 의한 사실혼 관계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좋은벗들 엮음,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서울: 정토출판, 1999), p. 14.

20) 1999년 7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성 202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이다. 문숙재 외,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2000), p. 147.

북한여성 인신매매는 폭력을 동원한 강제 납치 인신매매와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내에서는 주로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가 이루어진다. 중국의 조선족 중간매개자와 북한인 중간매개자 사이의 거래에 의해 북한여성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국으로 팔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내에서도 조직적인 여성 인신매매단에 의한 여성 밀거래가 적지 않으며, 인신매매단은 남편이 있는 기혼여성들을 강제로 납치하여 팔아넘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1)</sup>

중국 내에서도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와 함께 폭력을 동원한 강제 납치 인신매매가 이루어진다. 이를 테면 탈북한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유인한 후 본인 모르게 조선족, 중국 한족 등에게 팔아넘기거나, 중국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이 인신매매단에 알선하여 여성들을 팔아넘기며, 일단의 인신매매조직이 탈북여성을 강제로 납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기기도 하는 것이다.

한 연구자에 따르면 “식량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 구성원 중 여성을 매매한 사례들은 18~19세기의 유럽과 20세기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기아라는 위기발생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며, “북한 가정에서 먹을 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흔히 목격되는 것은 딸과 부인을 ‘인신매매자’에게 파는 것”<sup>22)</sup>이라고 한다. 실제로도 북한의 식량난 과정에서 부모가 딸을 팔아넘기거나 여성 본인이 원해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탈주민 증언 자료집들을 통해 보면, 부모가 딸을 매매하려는 데 대해 당사자인 딸들은 대체적으로 순응하는 편이다. 이들은 식량사정의 절박함과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며 자신이 매매되는 것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다. 또한 일부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스스로 자신이 매매되기를 청하거나, 탈북 후 중국생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매매혼을 청하기도 한다.<sup>23)</sup>

한 북한이탈여성에 따르면 1990년대 말 이래에는 적지 않은 10대 소녀들까지 인신매매 되었는바, 자신의 친척인 16세 된 여성의 어머니가 “팔려가더라도 잘

21) 김태현·노치영,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3), p. 105 참조.

22) 나초스 지음, 황재욱 옮김, 앞의 책, p. 105.

23) 좋은벗들 엮음,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pp. 61~67 참조.

먹고 잘 살라고” 딸을 중국으로 보냈으며, 그 여성은 북한인 중간매개자와 중국 조선족 중간매개자에 의해 한족에게 팔아넘겨졌다고 한다.<sup>24)</sup>

북한여성 인신매매는 식량난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에서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여성의 인신매매는 중국내 수요와도 맞물려 급증 추세를 나타내었는바, 부부 당 한 자녀 이상을 금지하는 중국의 인구정책으로 인해 중국 남녀인구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됨으로써 중국 내에 신부부족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중국의 성비 불균형은 1990년대 말 결혼 적령기의 신부 부족사태를 초래하였으며 신부 부족현상은 도시보다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농촌사정은 북한의 어린 소녀들로 하여금 선택할 여지없이 중국 농부들의 결혼 ‘제외’를 절망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 어린 소녀들은 노예 신분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이 취급되었다.<sup>25)</sup>

중국으로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강제 결혼, 성폭행, 원치 않는 임신과 부인과 질병, 노동착취, 유흥가 매춘 강요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무시와 구타, 경제적 어려움, 북한거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불법체류 신고 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6)</sup>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문제시되지 않는 편이다.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성폭행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으며, 여성들을 하대하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폭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여성들이 가족부양을 떠맡게 된 이후로 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입당이나 직장에서의 처우개선을 미끼로 한 성폭행보다는 장사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장마당 안전원, 열차승무안전원, 군인 등이 단속을 이유로 성폭행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식량난 이후 발생한 성폭행 사례

24) 허00, 2004년 4월 16일 면담.

25) 나초스 지음, 황재옥 옮김, 앞의 책, p. 105.

26) 김태현·노치영, 앞의 책 참조.

들 가운데 특기할만한 것은 국경을 넘어 중국에 갔다가 강제송환 되어 온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다. 식량난 이후 중국에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강제송환 되어 구속되면 당국으로부터 가혹행위나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돈이나 비밀편지, 비밀문건을 찾기 위한 몸수색 과정에서 자궁검사를 하기도 하며, 심문이라는 구실 아래 여성의 옷을 다 벗기고 몸의 특정 부위에 전기형을 가하는 등 성폭행을 가한다는 것이다.<sup>27)</sup>

그러나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력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감안해야 할 것은 다른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생존을 위해 여성 스스로 성을 상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식량난 이전에는 주로 입당이나 직장에서의 승진, 또는 좋은 자리 배치를 위해 여성들이 당 간부에게 성을 상납했다고 한다. 그러나 식량난 이후에는 특히 미혼의 젊은 여성들이 여행증명서 없이 식량을 구하러 다니거나, 장사를 다닐 때에 열차안전원에게 성을 상납하며, 또는 장마당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성을 상납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장사를 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운전수에게 성을 상납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알려지고 있다.<sup>28)</sup>

성폭력은 그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sup>29)</sup> 북한에서 식량난과 함께 나타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심화현상은 식량난이 초래한 북한사회의 성문화 왜곡과 보다 열악해진 여성 지위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 2) 생계유지를 위한 성의 도구화

북한에서 식량난 이후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으로 구성되는 가격의 이중구조화로 인해 발생한 또 하나의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매춘이다.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큰 차이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돈의 가치를 최우선시 하게 하였으며, 생계유지문제 해결이 절박한 여성들에게 있어 가장 쉽고도 빠르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매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춘이 북한여성들에게 있어서만 생계유지를 위한 대안은 아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일부 한국여성들에게 있어서도

27) (사)좋은벗들, 『북한 식량난과 북한인권』, pp. 102~105.

28) 권혁, 『고난의 강행군』 (서울: 정토출판, 1999), p. 22.

29) 김원홍 외, 앞의 책, p. 317.

매춘은 생계유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인식되었으며, 1970년대 말부터는 절대적 빈곤으로 인한 ‘전통적 매춘’이 퇴조하고 쉽게 돈을 벌거나 쾌락을 얻기 위해 향락업소를 매개로 하여 성을 파는 ‘산업형 매춘’, 또는 ‘점업 매춘’ 현상이 크게 늘어났음은 주지하는 대로이다.<sup>30)</sup>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고용 기회가 제한적이고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극히 어려울 때 매춘은 이념이나 제도를 뛰어넘어 여성들에게 있어 유용한 대안으로 선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식량난이 심화되고 생계유지를 위한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북한여성들 사이에서도 생계유지형 매춘과 함께 부의 축적과 일신의 안락을 위해 성을 상품화하는 여성들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장마당에는 돈 있는 장사꾼들을 대상으로 하여 매춘을 전업으로 하는 여자들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 매춘은 대개 역전의 대기숙박소<sup>31)</sup> 등의 시설을 이용하며 20·30대 과부들의 경우에는 집에서 술과 음식을 팔며 여행자나 출장원, 군인 등을 대기숙박 시키면서 매춘을 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매춘을 전업으로 하는 여성들 가운데는 매춘상대의 돈과 물건을 훔치거나 약탈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32)</sup>

한 북한이탈여성은 1998년까지만 해도 매춘행위가 발각되면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다고 하나,<sup>33)</sup> 대체적으로는 매춘여성이 단속에 걸리면 노동단련대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수용되었다가 풀려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특히 생계유지를 위한 주부의 매춘행위일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면제해 주거나 수용기간을 보다 단축시키며, 미혼 여성일 경우에도 신분이 확실하면 수용기간이 단축된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을 버리고 매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장기간 수용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sup>34)</sup>

30) 위의 책, pp. 116~117.

31) 대기숙박소는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집에서 돈을 받고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다.

32) 권혁, 앞의 책, p. 88.

33) 유00, 2004년 4월 29일 면담.

34) 정00·노00, 2004년 4월 14일 면담.

### 3. 가족부양 책임 증대와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

#### 1) 가족부양 책임증대

수많은 아사자를 발생시킨 식량난을 겪으면서 북한여성들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이전의 보조적 역할이 아닌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가족부양의 책임도 크게 증대되었다. 식량난으로 인해 여성들의 가족부양 책임이 커진데 대해서는 북한당국도 인정하고 있는 바, 1990년대 말 이래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에는 생계를 떠맡은 여성들을 격려하는 글들이 여러 편 게재되기도 하였다.

뜻밖에 들이닥친 식량, 전기, 땀감 등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 녀성들에게 먼저 미쳐 왔다.<sup>35)</sup>

식량난 이후 가족부양의 책임이 북한여성들에게 떠맡겨진 데에는 기본적으로 생계유지와 같은 가정생활 관련 문제는 여성이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북한여성 스스로도 여자는 시집가서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돌보는 게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하여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감에서 장사 등의 경제활동에 나선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장사는 거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의 대부분이 장사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으므로 그만큼 여성들의 가족부양 부담이 컸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들의 생계유지 부담이 가중된 보다 현실적인 요인은 경제난의 악화로 인한 기업소, 공장 등의 가동 중단이라 하겠다. 기업소와 공장에서의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직장에서 일거리가 없어지고 노임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엄격한 노동법규정에 따라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야 했으며, 따라서 여성들이 가장을 대신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식량난을 겪는 과정에서 가족부양을 위해 북한여성들이 한 일은 다양하나 가장 보편화된 경제활동은 장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3년 이전에 탈북한 응답자들의 44.8%가 식량구입을 위해 장사를 했다고 답하였으나, 1994년 이후에 탈북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81.3%가 장사를 했다고 답하고 있

35) “당의 참된 딸로 사는 행복,” 『로동신문』, 2000년 3월 8일.

다.<sup>36)</sup> 또 다른 연구보고서에서도 소수의 전문직 여성들(의사, 교원, 국가기관 임원 등)과 환자를 제외한 거의 70%의 여성들이 장사를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7)</sup>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가족부양을 위해 북한여성들은 텃밭 경작물이나 간단한 먹을거리를 장마당에 내다 팔거나, 접경지역에서 중국동포 보따리 장사로부터 물건을 사들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되거리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생필품 등을 싸들고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며 보따리 장사를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북한여성들은 가재도구를 내다 팔거나 이웃, 또는 친척에게서 돈을 빌려 ‘자본’을 마련하기도 하고, 장마당·열차단속원을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바치는 등 나름대로의 수완을 동원하였다.

여성들이 가족부양을 위해 장사 다음으로 힘쓴 경제활동은 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봉사업 활동, 가정에서 집짐승 기르기, 텃밭·폐기발 경작 등의 부업이다.

북한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가내작업반은 부양가족들이 공장에서 예비로 탐구된 원료, 자재, 반제품, 폐설물들을 가져다가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조직형태이며, 특히 직장이 없는 기혼여성들로 구성되는 인민소비품생산 조직이다.<sup>38)</sup>

가내작업반은 특히 직장을 나가지 않는 기혼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수입원로서의 의의가 적지 않으며, 따라서 가내작업반이 활성화되면서부터는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아졌다고도 한다. 또한 동에서 운영하는 가내작업반은 사회동원을 빼는 데에도 활용되었는바, 가내작업반에 일정액의 돈을 바치면 사회동원에서 빠지고 장마당에 나가 돈을 벌수도 있다는 것이다.<sup>39)</sup>

가내편의봉사업은 “가정부인들과 년로자들, 사회보장자들이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면서 부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조직운영하는 개인부업경리의 한 형태”<sup>40)</sup>를 말하며, “폐기폐설물, 유헴자재, 농토산물로 세소일용품과 부식물들을

36) 박현선, 앞의 글, p. 148.

37) 최명숙, 앞의 글, p. 10.

38)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 61; 김애실, “여성의 경제활동,” 손봉숙 외,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나남, 1991), pp. 211~215 참조.

39) 구수미·이미경, “1990년대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4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4), pp. 98~99.

40) 사회과학출판사, 앞의 책, p. 62.

만들어 공급하는 가공편의업, 일용필수품을 수리해 주는 수리수선편의사업, 미용, 빨래를 해주는 것과 같은 위생편의업” 등으로 구분되며 사진촬영도 가내편의봉사업에 해당한다.

위에서와 같이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은 가내작업반 활동과 미용, 옷수선, 사진촬영 등의 가내편의봉사업을 통해 가족의 생계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이 외에도 하루 샅일이나 품팔이 임노동, 또는 산나물 채취나 술 등 음식물 제조 판매, 일용수제품 판매 등의 개인 상업행위를 통해서도 가족부양에 힘쓰고 있다.

북한여성들은 가족부양을 위해 가정에서 염소, 토끼, 닭, 개 등의 집짐승을 기르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으며 텃밭·땀기밭에 감자, 강냉이, 채소 등을 경작하여 가족의 식량으로 조달하거나 농민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외화벌이도 생계유지를 위한 여성들의 부업 가운데 하나이다. 북한여성들은 단체에 소속된 외화벌이 기구에 참여하거나 개인적으로 직접 중국 상인과 접촉하여 거래하기도 한다. 특히 지리적 특성상 신의주는 중국과의 무역이 용이하여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외화벌이를 위한 해산물 채취작업에 많은 부양여성이 동원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제난 이후 다른 지역에 비해 외화벌이가 신의주 여성들의 생계유지 방식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sup>41)</sup>

가족부양을 위해 북한여성이 선택한 또 다른 방법은 매춘이다. 1990년대를 통해 여성들의 생계유지형 매춘이 성행하게 된 데에는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가족부양을 위한 여성들의 매춘행위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진 것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2)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

대체적으로 북한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는 편이며, 이는 직장에서 기혼여성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원하고, 특히 여성 자신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은 좋은 직장보다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가정에 안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중국 연변대학의 한 연구자에 따르면, 여성의 취직률이 높았던 1980년대 중반에도 북한의 미혼여성들은 대부분이 취직을 하였으나 기혼여성들의 취직률은 30~40% 정도였으며,<sup>42)</sup> 전문기술직과 체력노동업종을 제외한 상업, 복무업 및

41) 구수미·이미경, 앞의 글, p. 96.

일반 사무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결혼하고 해산하는 것이 곧 실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자는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은 결혼하면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천직’이라는 고정관념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식량난이 악화되고 국가적 생산·공급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여성들이 생계유지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가족부양을 위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장사, 가내작업반 부업과 수선, 세탁, 이·미용 등의 편의봉사업, 가축사육, 텃밭·폐기밭 경작 등의 비공식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장사를 주 업종으로 하면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이 높아져갔다. 식량난 악화 이후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시작한 장사가 부의 축적을 가능케 하는 등 점차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높인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장사를 통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제고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여성들이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장사 수완 내지 요령을 터득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사 수완 내지 요령이란 장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사회 공적·사적연결망 활용, 자금조달, 이윤배가, 수지타산에 따른 상품선택 등과 관련된 것이다.

둘째,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란 장사 품목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통해 보다 높은 수입을 도모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장사를 통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여성들이 국경지역을 포함한 북한 전역을 다니며 북한인, 중국인 모두를 상대로 장사를 함으로써 대담성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동과 외국인 상대로 인해 북한내·외의 사정에 밝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따른 북한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

42) 미혼여성일 경우 직업이 없으면 양식배급관계가 곧 취소되나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아이를 기르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도 양식관계를 남편의 직장에도 옮길 수 있다 (출근은 하루 700g, 이직은 하루 300g). 림금숙, “90년대 이후 조선여성들의 사회경제 활동참여의 변화,” 한국여성연구원,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연변대학 여성문제연구중심, 1999), pp. 20~21.

제고는 장사 외에도 가내작업반 부업활동과 편의봉사업, 가축사육, 텃밭·뽕기밭 경작 등 비공식부문에서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식량난이 장기화됨에 따라 북한여성들 사이에 성행한 매춘 역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높인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식량난이 장기화되고 매춘이 성행함에 따라 여성들에게 있어 매춘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부의 축적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된 데 따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와 관련한 평가에 있어서는 몇 가지 감안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장사를 비롯한 여성들의 경제활동량이 증대한 것만을 가지고 경제적 자립능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활동량도 중요하나 활동의 내용을 주목해야 하는바, 특히 매춘행위와 같은 경제활동은 오히려 북한여성들로 하여금 왜곡된 직업의식을 형성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장사과정에서의 부당한 거래나 이윤 추구 역시 식량난 이전에 여성들이 지녔던 직업의식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가족부양을 위한 장사는 농산물이나 단순한 물품 거래에 불과했으며, 장사 외의 부업 역시 전문지식이나 세련된 기술 내지 오랜 숙련을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이 아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종래 북한여성들이 지녀 온 직업수행능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넷째,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를 논하기에는 북한여성들이 가족부양을 위한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은 과도한 노동과 성폭력의 경험, 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너무 심각한 정도라는 것이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북한여성의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은 가족의 생계유지라는 부담을 안고 시작되었으며 여성 자신의 의지로서 중단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 4. 성역할 분담성 및 고정성 강화

식량난으로 인해 가족단위로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종래 북한의 가부장적 가정생활에서 일단의 변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난이 심화되고 공장, 기업소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남편들도 부인을 따라 장사에 나서는가 하면, 여성들이 밖에 나가 장사를 하는 동안 밥짓기, 청소, 아이

돌보기 등의 집안일을 남편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식량난 이후 여성들에 의해 생계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가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언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식량난 이후 북한의 가정에서 장사와 같은 부부간 협업 내지 남성의 가사 돕기 현상이 증가하고 여성의 발언권이 보다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북한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생활의식이 달라진 것은 아니며 성별 역할분담의식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여성이 식량과 생활비를 조달하는 등 가정경제를 주도하고 남성(남편)이 가사와 양육의 일부를 담당, 또는 보조함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구조에 가시적인 변화가 생기기는 했으나, 이로 인해 기존의 가부장적 생활의식과 성역할분담의식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한 조사결과에서도 경제난 이후 북한의 가정생활에서 엄격한 성별분업현상은 깨어졌지만 가부장제 질서의 와해를 의미할 정도는 아니며 여성의 의식변화도 가부장제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북한여성들은 이전처럼 성별 역할분담 자체에 대한 고정관념은 버렸지만 가정의 일은 여전히 여성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과 함께 남편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섬김과 복종의 대상으로는 아니지만 그의 가부장으로서의 존재와 권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sup>43)</sup> 이와 같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정생활문화는 관련 조사결과들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성역할고정성에 대한 수준이 매우 높은 바, 가족의 주인은 가장이며, 남편에게 순종해야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 따라 역할이 다르다는 등의 의식에 대해 80%~94%의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sup>44)</sup> 중국거주 탈북여성의 약 61%가 보수적·가부장적 성 의식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도 있다.<sup>45)</sup> 그런가 하면 한 조사결과에서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이상적인 여성상은 어른이나 집안에서 인정받는 며느리, 남편에 대한 내조를 잘하는 아내인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전통적 성역할 논리에 따른 여성이미지가 강하게 고

43) 구수미·이미경, 앞의 글, p. 95.

44) 박현선, 앞의 글, p. 84.

45) 김영란·김혜영, “남북한 여성의 사회의식에 관한 비교연구 및 수렴방안,” 『아세아여성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소, 2000) 참조.

착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sup>46)</sup> 이와 같은 조사결과들은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감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가장권의 약화와 함께 여성의 권한 및 지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종래의 가부장적 의식을 바탕으로 성역할 분담성 및 고정성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면담한 북한이탈여성들에 따르면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들이 장사를 통해 경제력이 강해지면서 가정에서의 발언권이 강해진 것은 사실이나, 여성들은 세대주를 집안의 가장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가부장 중심의 가정생활에 저항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또한 생계유지 등 가정생활 관련 문제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도 여성들은 부정 내지 저항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순응하는 편이라고 한다.

식량난 이후 가족의 생계유지와 관련해 가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여성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성역할 분담성 및 고정성이 강화되고 있음은 북한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존여비사상에 근원이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남존여비사상을 “착취사회의 반동적 료리도덕관”이며 “근절되어야 할 봉건유교사상의 잔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입장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의 남존여비관은 강한 편이며, 이와 같은 관념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함께 북한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여성들과의 면담결과에 따르면 북한 여성의 대부분은 사회 전반에 남존여비사상이 만연해 있음을 알고는 있으나 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며, 남존여비사상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남녀평등은 노동생활에서만 구현되고 있으며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의 삶은 남녀불평등하고 남성에게 대해 종속적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굳이 저항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여성들은 결혼생활에서 “남자는 하늘,” “세대주는 그저 섬겨야 되는 존재”로서 공대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이와 같이 세대주의 권위를 높여주고 공대함으로써 가정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믿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 북한이탈여성은 “세대주가 바로 서야 가정이 평화롭

46) 위의 글, pp. 236~238.

고, 그래야만 나라가 평안하고 시대가 건전해지는 것이니, 따라서 세대주의 권위를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사회도덕생활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일 뿐만 아니라 당의 방침이기도 하다”<sup>47)</sup>라고 말한다.

#### IV. 맺음말

이 연구는 식량난이 북한여성들에게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초래된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를 밝혀 논하고자 시도된 것이며, 위에서와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위의 내용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에서는 주로 식량난이 북한여성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깊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이를 테면 식량난은 북한여성들로 하여금 자아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의식하게 하였으며 상품경제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야기하였다. 또한 북한여성들은 가족부양을 위한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북한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 내지 독립성 강화와 인생의 주체, 독립적 개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의식, 여성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가정 내 성역할분업구조에서의 변화 등은 중·장기적으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의식의 약화와 함께 북한여성들의 역할 및 지위 향상을 전망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빈곤지역의 기근으로 인한 일차적 희생자는 여성이라고 할 때,<sup>48)</sup> 이에 대해 북한도 예외가 아닌바, 수년간 지속된 북한의 기근에 따른 일차적 희생자도 여성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여성들의 삶의 환경을 보다 더 열악하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여성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 단적으로 말해서 식량난이 북한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은 긍정적이기보다는 위의 분석결과와 같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가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일반적인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

47) 유00, 2004년 4월 29일 면담.

48)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4), p. 574.

할 수는 없다.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는 주로 국내외 거주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면접조사결과와 이들의 증언 자료집을 주요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의 연구는 근본적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탈여성은 특수한 신분일 뿐만 아니라 대표성에 있어서도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탈북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식량난이 극심했던 동북부 지역 출신이며, 탈북을 결행할 만큼 생활환경 및 조건이 보다 열악했고, 또한 탈북 체험으로 인해 북한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는 다소 다른 심리, 또는 정서를 지니고 있어 이들의 증언을 북한에 살고 있는 여성들 모두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한계는 북한의 식량난이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은 이들 각 개인의 생활환경 및 조건에 따라 그 양상이 다소 다르며 정도를 달리한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식량난의 영향은 거주지역, 직업, 연령, 교육수준, 가족구조 및 가족구성원의 노동력, 사회연결망 활용 여부, 경제력 등에 따라 양상이 다르며 그 정도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결과물들<sup>49)</sup>에서도 식량난이 북한여성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본 연구결과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때, 이로써 이 연구결과는 일반화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식량난 이후 북한여성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역할 및 지위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의 유용성 있는 자료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정구·법륜 엮음, 『1999 민족의 희망찾기』, 서울: 정토출판, 1999.  
 구수미·이미경, “1990년대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 북한연구학회 2004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권 혁, 『고난의 강행군』, 서울: 정토출판, 1999.  
 김애실, “여성의 경제활동,” 손봉숙 외,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나남, 1991.

49) 구수미·이미경, 앞의 글; 노옥재, “북한 식량난 속의 ‘여성’의 삶과 인권,” 『북한여성의 삶·꿈·恨』 (서울: 민주평통 북한연구회·(사)좋은벗들, 2003); 림금숙, 앞의 글; 박현선, 앞의 글; 최명숙, 앞의 글.

- 김영란, “북한여성의 사회복지정책연구,” 『지역학논집』, 제5집.
- 김영란·김혜영, “남북한 여성의 사회의식에 관한 비교연구 및 수렴방안,” 『아세아여성연구』,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소, 2000.
- 김원홍 외, 『개정 오늘의 여성학』,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0.
- 김태현·노치영,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3.
- 나초스 지음, 황재옥 옮김, 『북한의 기아: 기아 정치 그리고 외교정책』, 서울: 다홀미디어, 2003.
- 노옥재, “북한 식량난 속의 ‘여성’의 삶과 인권,” 『북한여성의 삶·꿈·恨』, 서울: 민주평통 북한연구회·(사)좋은벗들, 2003.
- 림금숙, “90년대 이후 조선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참여의 변화,”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연변대학 여성문제연구중심, 1999.
- 문숙재 외,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2000.
-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 이 석, “1994~2000년 북한 기근: 초과 사망자 규모와 지역별 인구변화,” 『국가전략』, 제10권 1호.
- 이금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4.
- (사)좋은벗들, 『북한 식량난과 북한인권』, 서울: (사)좋은벗들, 2004.
- 좋은벗들 엮음,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서울: 정토출판, 1999.
- 최명숙, “90년대 이후 조선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삶에 관하여,” 한국여성연구원, 『남북한 여성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연변대학 여성문제연구중심, 1999.